

# 제주시 창작 뮤지컬 '만덕' 기약 없는 상설공연

2018년 제주, 2019년 대구 2년간 총 19억 공연에 투입 작년부터 코로나로 중단 속 제주합창단 주제작 연주회 "내년 서울 공연 재추진 계획"



2018년 초연된 제주시 창작뮤지컬 '만덕'. 2년째 공연이 끊긴 가운데 내달 제주합창단이 '만덕' 주제작으로 정기연주회를 연다.

제주시가 예산을 댄 창작 뮤지컬 '만덕'이 2년째 공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가 내세운 상설공연 계획이 말잔치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만덕'은 '조남과 나눔의 제주 정신을 몸소 실천한 김만덕의 일대기'를 내용으로 2018년 1월 제주아트센터에서 무료로 초연됐고, 같은 해 10월에 제주아트센터에서 유료로 재공연됐다. 2019년에는 대구국립제주지킴이페스티벌(DIMF)에 참가해 유료 공연됐고 심사위원상, 남우주연상, 음악상 등 3관왕을 차지

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14억, 2019년 5억원 등 총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20년 9월에는 서울 무대를 시도했지만 수도권 공연계의 코로나 19 확산세로 행사가 무산됐다. 당시 12억원을 들여 송파구에 있는 1000석 규모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을 올릴 예정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대규모 공

연을 기획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이 멈췄다. 제주시가 상설공연을 취지로 개설한 뮤지컬 아카데미도 2018년 25명, 2019년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제주 문화계 일각에서는 애초 '만덕' 상설공연 현실화에 부정적 전망을 보여왔다. 서울의 공연 제작사가 중심이 돼 유명 뮤지컬 배우를 캐스팅했으나 오히려 이 점이 '제

주의 상설공연'으로 만드는 데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였다.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관리하는 제주도립제주예술단(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도 이 작품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2년에는 작년에 무산된 서울 공연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뮤지컬 아카데미도 내년부터 재개해 서울 공연 이후 상설공연의 토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공연 소식에 끓긴 '만덕'의 아쉬움을 달래듯, 김정연 지휘자가 이끄는 제주합창단이 뮤지컬 넘버로 102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11월 4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무료로 열리는 '합창으로 만나는 만덕' 연주회에서 제주합창단은 '만덕할망',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네' 등 18곡을 편곡해 솔로, 중창, 합창으로 들려준다. 전선희기자

## 성악에 실은 세 개의 장미, 아리랑, 목가

소프라노 강정아 독창회 국내외 가곡·오페라 등

강정아씨는 이번에 독일·프랑스·영미 가곡과 함께 한국가곡, 오라토리오, 오페라 등 여러 낯익은 음악을 성악으로 들려나른다. 같은 주제가 흐르는 서로 다른 음악을 비교 감상하고 각국의 다양한 선율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바흐의 '요한 수난곡'(플루트 김수연), 모차르트의



오페라 '극장 지메인' 중 '친애하는 젊은이여', 비숍의 오페라 '실수 연발' 중 '보아라 저 정다운 종

달새를',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리아타' 중에서 '이상해! 아, 그 이인가... 언제나 자유롭게', 이영조의 '소프라노를 위한 세 개의 아리랑' 등으로 짜였다. 장미를 다른 슈만의 세 작품 '동방의 장미로부터', '장미꽃, 장미꽃', '나의 장미여'도 준비했고 베를리오즈, 필라쿠아, 샤미나드가 각각 작곡한 '목가'도 들려준다. 피아노는 이영민 씨가 맡는다. 장선화씨의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회다. 전선희기자

## "성과 미흡 경영평가지표 중점 관리"

제주문예재단 경영개선 계획 외부 컨설팅·내부 TFT 강화

경영개선 계획을 내놨다. 재단은 26일 "경영평가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성과가 부진한 지표를 중점 관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단의 경영혁신 컨설팅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추

진된다. 내부적으로는 경영평가 TFT 역할을 확장하기로 했다. 조직 내부망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엔 재단이 중점 관리하기로 한 성과 미흡 경영평가지표는 고객만족도, 재정,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대표과제 달성도 등 6가지다. 이와 관련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 시책 개발을 위한 열린게시판 설치, 수익계약 최소화화 및 계약금의 타당성 점검 등 회계관리 강화, 수익사

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윤리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비위 요인 제로화를 위한 맞춤형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비위행위에 비례하는 신상징벌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승택 이사장은 "경영평가 저등급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에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2021년도(2020년 실적)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라' 등급, 기관장 성과 평가 '다' 등급을 받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후속 조치로

### 고재만의

### 제주의기림관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루까지 골렘. "오, 지름밤이엔 흥건 보리쌀 농곡 좁쌀 농곡 밥이 거름 댈어가민 솟디 촛지름 낱 우금으로 골로로 섞영 낭푼에 평 먹으민 맛 좋은 밥이주." 줄네 골렘. "하르바님, 밥 담은 동고량은 무신 걸로 맹글아마쑸?" 하루까지 골렘. "야네달아, 동고량은 내남으로 맹글앗저. 먹을까가 쉬지 안 흥개 대남으로 맹글아사 부름이 들엇닥 낫닥 흥지 안 흥커냐? 밧일이나 먼먼헌디레 웨방 갈 맨 동고량에 먹을까 담양 가져. 집이선 맛이 흥쌀 웃어도 일흥당 보민 동고량착 밥이 어땡사 맛 좋은지 몰른다."

#### \* 제주어 풀이

- \*우금(밥우금, 밥우금, 밥자, 밥주걱, 우금, 우금, 울곡, 울금) : <이름> 밥주걱. \*골로로(골오로, 골호로) : <어찌> 골고루. \*섞영(서트다, 허끄다) : <음직>섞다. 어지럽히다. \*섞어 : 섞어서. \*무신 걸로 맹글아마쑸? : 무엇으로 만들어요? \*내남으로 맹글앗저 : 대나무로 만들어서. \*먹을까가 쉬지 안 흥개 대남으로 맹글아사 : 만들어야. \*부름(부름, 부름) : <이름> 부름. \*들엇닥 낫닥 흥지 안 흥커냐? : 들락 날락 하지 않겠니(하겠지)? \*웨방(웨방) : <이름>집을 떠난 먼 지방. \*담양 가져 : 담고 가지. \*흥쌀 웃어도 : 좀 없어도. \*일흥당 보민 : 일하다 보면. \*동고량착 밥이 : 도시락의 밥이. \*어땡사 맛좋은지 몰른다 : 어떻게(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고재만 화백

## 성악과 기악, 100인의 여성합창 선율

제주음악협회 제주음악계 내달 2일 제주아트센터서

성된 브리탄테 브라스, 색소폰 성민우, 소프라노 이채영 등이다. 도내 5개 여성합창단이 모인 100인의 여성합창단도 이날 무대에 오른다.

제주 음악인들이 가을빛 서정을 담아 축제 같은 무대를 펼친다. 11월 2일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 주최 2021 제주음악제다.

공연 프로그램은 이수인의 '내 맘의 강물', 슈만의 '환상곡', 오페라 '사랑의 묘약' 김희갑의 '향수', 영화 '미션' 주제곡인 로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김민기의 '상록수' 등이다. 브리탄테브라스 밴드는 제주 작곡가 홍정호가 만든 '미안마을 위한 파파르'를 연주한다. 관악과 어우러지는 100인의 여성합창을 통해선 '아름다운 나라', '제주도 푸른 밤'을 들을 수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음악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기획된 이번 음악제는 성악, 기악, 합창으로 꾸민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정혜민, 피아니스트 김미나, 클라리넷 정준화, 테너 김신규 한동균, 바리톤 이영호 전성민, 금관악기와 타악기로 구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기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기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광양사거리